

이슈 브리핑

◎ 이슈 요약

- ◆ 중국 EV·배터리 업계, 내수 시장 과잉 경쟁, 美·EU 관세·규제 속에서 '24년 해외 투자가 사상 처음 국내 투자 추월
- ◆ CATL, 세계 리튬 생산량의 6%를 차지하는 중국 장시성 리튬 광산의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해 채굴 일시 중단
- ◆ Dongfeng, 내연기관 생산을 위한 Honda와의 합작사 지분 50%를 매각하고 EV 사업에 보다 집중할 계획
- ◆ Ford, 'Model T Moment' 선언하며 보급형 EV 생산 확대 목표로 미국 루이빌 공장을 EV 전용 시설로 전환할 계획
- ◆ 인도 정부, 소비 촉진을 위한 감세 계획의 일환으로 소형차 중심의 자동차 세금 인하 방안 검토 중

◆ 중국 EV·배터리 업계, '24년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추월

- Bloomberg는 Rhodium Group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'24년 중국 EV·배터리 업계의 해외 투자가 사상 처음 국내 투자를 넘어섰다고 보도
 - * 수년간 국내 투자 비중은 약 80% 수준이었으나, '24년 해외 투자액은 약 160억 달러로 국내 투자액 약 150억 달러를 근소하게 상회
- Rhodium은 이 현상을 ①중국 EV 시장의 과잉 생산 및 내수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, ②미국·유럽의 고관세 및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전략으로 평가
 - * 해외 투자액의 약 74%는 배터리 제조 부문에서 발생. 주요 배터리 社들은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고객사의 요청에 대응하여 해외 현지 진출을 급격히 확대
- 중국 EV·배터리 업계는 해외 투자*가 국내 투자 대비 비용·건설 기간·규제 등의 부담이 크더라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
 - * 해외 프로젝트 완공률(25%)은 국내(45%) 대비 크게 낮은데, 일례로 배터리 공장의 경우 국내 건설 기간은 일반적으로 3~12개월, 해외 10~24개월 소요
 - ▶ (CATL) '25.6월 국내 경쟁 심화로 해외 확장을 '최우선' 과제로 선정
 - ▶ (BYD) 브라질·태국 EV 공장 보유 중이며, 튀르키예·인도네시아 EV 공장 설립 계획
 - ▶ (Chery) 튀르키예 10억 달러 규모 EV 공장 설립 예정

Bloomberg('25.8.19.) <https://bit.ly/4oHQQu40> CNBC('25.8.18.) <https://bit.ly/3JnxcB3>

◆ CATL, 중국 장시성 리튬 광산 채굴 일시 중단

- CATL은 장시성 젠샤위(梘下窩) 리튬 광산* 채굴 허가 기한이 '25.8.9.부로 만료되어 운영을 중단
 - * Bank of America에 따르면, 동 광산이 세계 리튬 생산량의 6%를 차지
-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산업 전반의 과잉 생산·저가 경쟁에 대응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어 허가 갱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
- 동사는 광산 면허 갱신 절차를 거친 후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, 시점은 미정. Bloomberg는 최소 3개월 간의 운영 중단을 전망

Bloomberg('25.8.11.) <https://bit.ly/4fDuTFZ> Nikkei('25.8.11.) <https://bit.ly/3Hcr7qp>

◆ Dongfeng, Honda와의 엔진 합작사 지분 50% 매각

- Dongfeng은 Honda 차량용 엔진 생산을 위해 '98년 중국 광저우에 설립된 합작사 Dongfeng Honda Engine의 지분 50%를 매각하기 위해 광둥 연합 재산권 거래소(广东省联合产权交易所)에 상장 결정
-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내연차 관련 사업을 정리하고 EV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
- 지분 매각 대금은 자사의 신에너지차(NEV) 고급 브랜드 'Voyah' 사업 강화에 사용할 계획

Nikkei Asia('25.8.19.) <https://bit.ly/4fGYa2F> Bloomberg('25.8.18.) <https://bit.ly/4oVWSFA>

◆ Ford, 'Model T Moment'를 선언하며 보급형 EV 생산 본격화

- Ford는 보급형 EV 생산 확대를 위해 켄터키주 루이빌 공장을 EV 전용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데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힘
- Ford는 과거 'Model T'가 생산·기술 혁신으로 자동차 대중화를 이끌었던 것처럼, 3만 달러 이하 EV 출시를 목표로 신규 EV 플랫폼을 설계하고 생산·조달 체계를 개편할 계획
- 더불어 '23.2월 CATL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30억 달러를 투자해 미시간주에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, 향후 동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신형 EV에 탑재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

CNBC('25.8.11.) <https://bit.ly/45rMltD> Nikkei Asia('25.8.12.) <https://bit.ly/3JgirzN>

◆ 인도 정부, 대규모 감세의 일환으로 자동차 세금 인하안 검토

- 인도 정부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상품·서비스세(GST) 개편의 일환으로 자동차 세금 인하 방안을 검토 중
- HSBC 보고서에 따르면, 자동차에 대한 GST 세율 인하안 적용 시 소형차 가격은 약 8%, 중형차 이상은 3~5% 인하 전망
-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Maruti Suzuki, 현대차, Tata 등 소형차에 강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며, 최종안은 '25.10월 이전 확정 예상

Business Today('25.8.19.) <https://bit.ly/47CZ8L4> Bloomberg('25.8.18.) <https://bit.ly/41SU2GR>